이 땅을 품은 하늘아래 아름다운
HARUM CHURCH 하름교회

다음세대용



교회학교 21일 감사♥노트

21Days Thanks Note

감사로 씨앗을 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21일!

"감사하면 예쁜 열매가 자라요!"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
이 노트는 21일 동안 우리 마음밭에
성령님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가꾸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정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는 오늘 어떤 열매가 자라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세요.

감사는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지구를 아끼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고마워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루에 조금씩, 21일 동안 감사노트를 써 내려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함께 21일 동안 감사운동,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감사로 씨앗을 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21일!
하나님께 웃으며 달려가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화이팅!





01 준비: 내 마음의 밭

2026년 10월 25일(주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 5:22-23)

농부 아저씨가 맛있는 과일을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일구고 돌멩이를 골라내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미움이나 불평이라는 돌멩이가 가득하면 예쁜 열매가
자랄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딱딱했던 마음이
보들보들해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밭에 아홉 가지 아름다운 열매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매일 '감사'라는 물을 주면,
그 씨앗들이 쑥쑥 자라날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세요."
감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오늘부터 21일 동안 우리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기대하며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불평과 미움의 돌멩이를 치우고 감사로 채우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02 사랑①: 나를 사랑하기

2026년 10월 26일(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시 139:14)

거울을 보며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가끔은 내 외모나 실력이 친구보다 부족해 보여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참 멋지고 특별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하나뿐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웃는 모습,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시작돼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저를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제 모습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당당하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03 사랑②: 이웃을 사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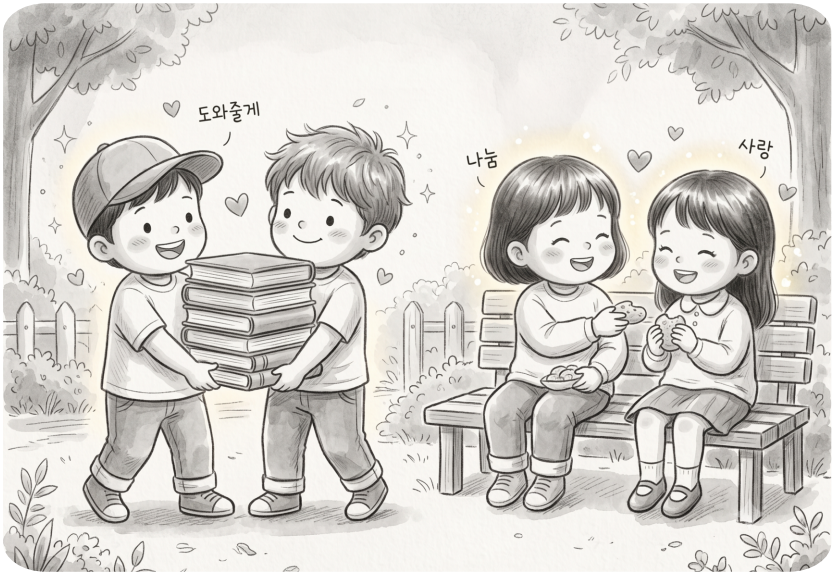
2026년 10월 27일(화)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일 3:18)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는 건 참 듣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언제나 먼저 다가가는 '행동'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든 친구를 도와주고, 외로운 친구 옆에 다가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 것을 조금 나누어 주고,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멋진 사랑이지요.
사랑은 마음속에만 가두어 두면 보이지 않아요.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은 진짜 열매가 되어 나타나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선물할 수 있을까?"
감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동으로 나눌 때 더 커져요.
내 곁에 사랑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 용기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기

04 희락①: 작은 것의 기쁨

2026년 10월 28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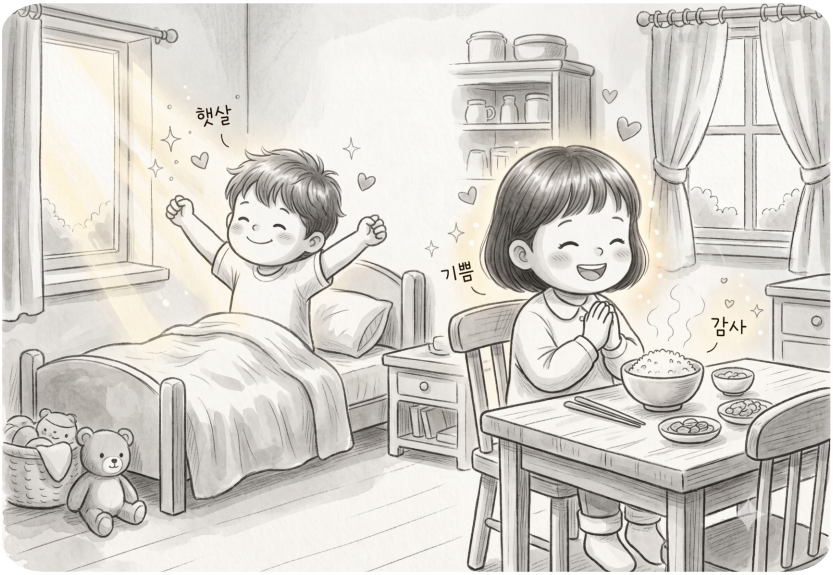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 5:16-18)

우리는 큰 선물을 받거나 놀이공원에 갈 때만
기뻐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작은 것'에 숨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비치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냄새, 친구의 반가운 인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물찾기를 하듯 하루 속에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엔
날마다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나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평범한 하루 속에 숨겨진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매일 감사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제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05 희락②: 함께하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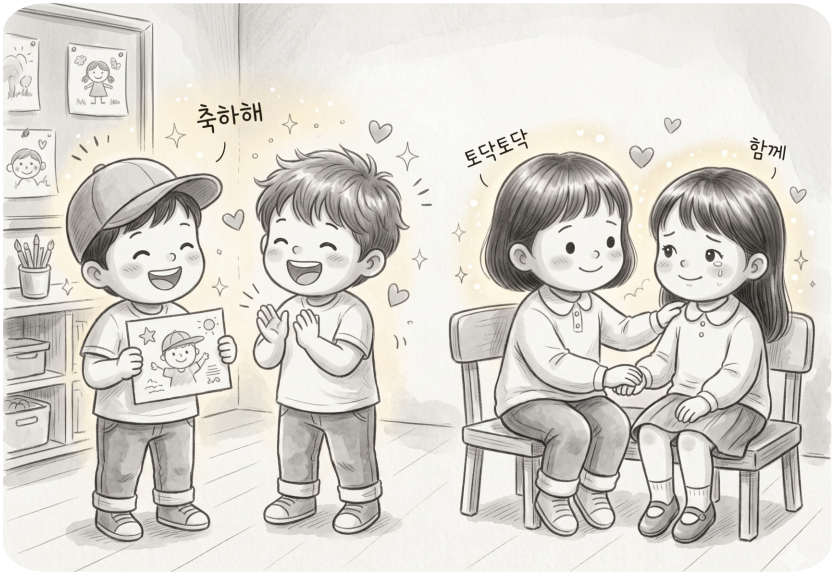
2026년 10월 29일(목)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롬 12:15)**

맛있는 간식도 혼자 먹을 때보다 친구와 나눠 먹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나누면 두 배로 커지거든요!
친구가 칭찬을 받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정말 잘됐다! 나도 너무 기뻐!”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도 진짜 기쁨이 차올라요.
반대로 친구가 슬퍼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있을 때,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다시 웃을 힘이 생겨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친구의 기쁨을 내 일처럼 축하해 주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슬퍼하는 친구 곁에서 따뜻하게 위로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기

06 화평①: 관계의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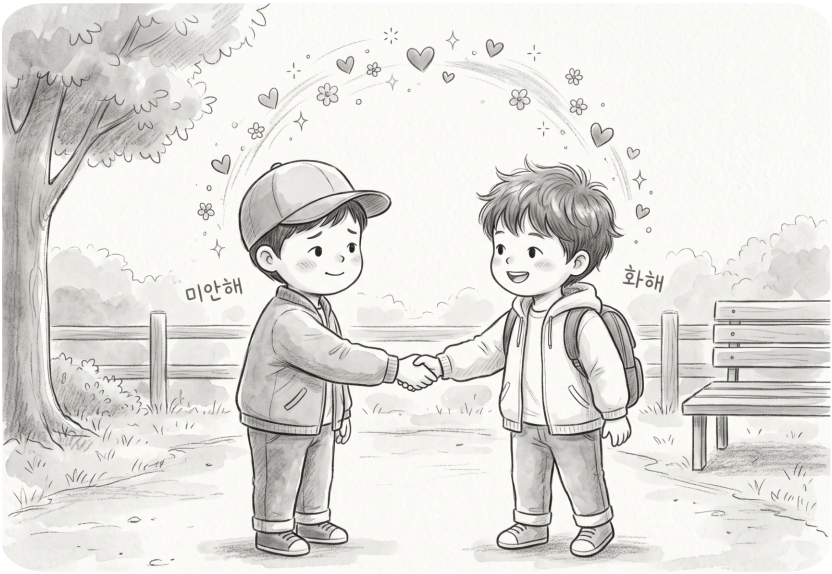
2026년 10월 30일(금)

여러분의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롬 12:18)

친구와 다투고 나면 마음이 쿵쾅거리고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누가 먼저 사과할까 눈치만 보다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너희 쪽에서 먼저 평화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라고
말하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큰 용기를 내는
멋진 행동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시려고
먼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웃음꽃이 피어나면 좋겠어요.
내 작은 용기 하나로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다툼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주세요.
미운 마음 대신 화해와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기

07 화평②: 창조 세계와의 평화

2026년 10월 31일(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하실 것이다. (마 5:9)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푸른 나무와 예쁜 꽃,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들과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해요.
에너지를 아끼는 행동, 물건을 생각없이 사거나
버리지 않는 것, 물을 아껴 사용하는 것,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 행동이
지구를 살리는 평화의 씨앗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아,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창조 세계와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자연과도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끼고 돌보는 멋진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08 오래 참음①: 내 안의 기다림

2026년 11월 1일(주일)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잠 16:32)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불쑥 화가 치밀어 올라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고, 짜증을 내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성경은 화를 참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장군보다
더 강하다고 말해요.
화가 날 때 바로 화를 내버리면 나중에 꼭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럴 땐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마음속으로 숫자 셋을 세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잔잔하게 다스려 주세요."
잠시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내 감정을 멋지게 다스릴 때, 내 마음도 지키고
친구의 마음도 지킬 수 있어요.
나에게 참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잠시 멈추어
기다리는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진짜 강한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평안과 인내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기

09 오래 참음②: 타인을 향한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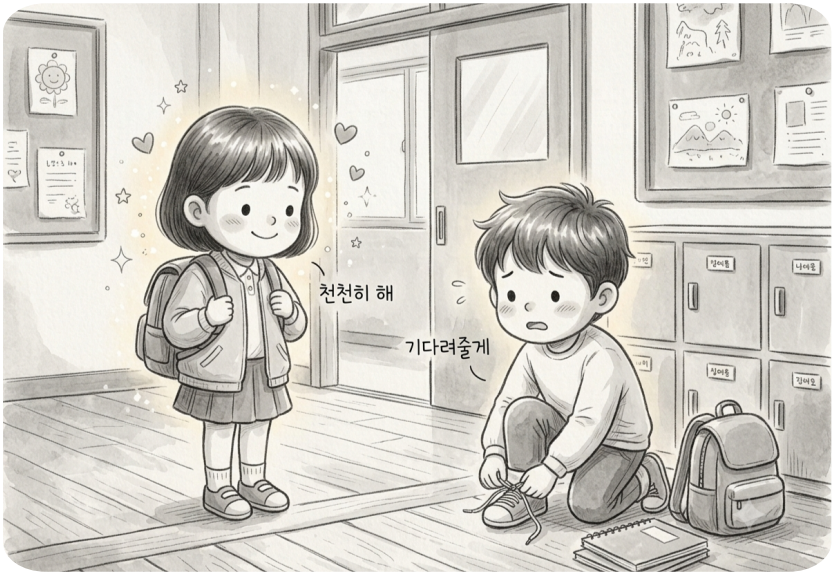
2026년 11월 2일(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엡 4:2)**

교실이나 집에서 나보다 행동이 느리거나
실수를 자주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느려! 답답해!" 하고 재촉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일 나무마다 열매가 익는 시간이 다 다르듯,
사람도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달리기를 잘하지만,
어떤 친구는 천천히 그림 그리는 걸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친구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기다려 주면 어떨까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내가 기다려 줄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기다려 줄 때,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따뜻해져요.
나를 언제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부족한 저를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친구의 실수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기다려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10 자비①: 친절한 입술

2026년 11월 3일(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잠 16:24)

달콤한 꿀을 한 스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 힘이 나요.
우리가 하는 '친절하고 따뜻한 말'도 바로
이 꿀송이와 같대요!
가시 돋친 말은 친구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지만,
다정한 말은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약이 돼요.
"네가 있어서 참 좋아", "오늘 정말 멋지다!", "고마워!"
이런 말들은 돈이 들지도 않는데 듣는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줘요.
오늘 내 입술에서는 가시가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달콤한 꿀이 나가고 있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자비의 열매는 우리의 말씨를 부드럽고
달콤하게 바꾸어 줘요.
내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을 선물하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제 입술에 달콤한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을 담아주세요.
상처 주는 말 대신 친구를 살리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말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기

11 자비②: 대가 없는 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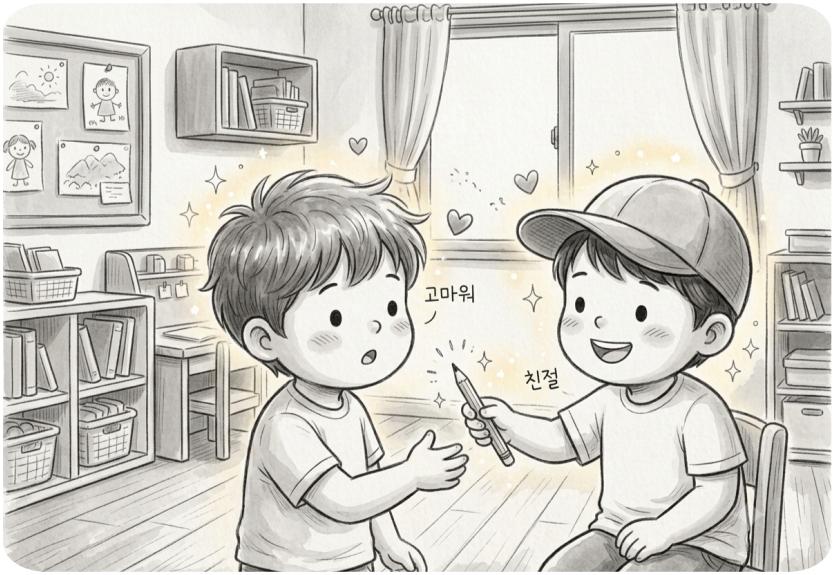
2026년 11월 4일(수)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눅 6:36)**

우리는 가끔 "내가 이번에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중에 나한테 잘해줘야 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친절이었어요.
햇빛과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지요.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도, 심지어 나를
속상하게 했던 친구에게도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친절이 진짜 하나님을
닮은 '자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거저 주셨으니,
나도 기쁘게 흘려보낼래요!"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 때, 내 마음은 하늘만큼 넓어지고
행복해져요.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비로운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12 양선①: 숨은 선행

2026년 11월 5일(목)

네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마 6:4)

착한 일을 하고 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얼른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어져요.
물론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비밀 하나를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착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교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살짝 줍거나, 친구의 신발을 몰래 가지런히 정리해 주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내가 한 줄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을 보시고 미소 짓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착한 일, '양선'의 열매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먼저 생각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착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제 작은 행동을 눈여겨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기

13 양선②: 나눔의 실천

2026년 11월 6일(금)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히 13:16)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기쁘게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난 아직 어려서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맛있는 간식 한 조각, 아끼는 학용품,
용돈을 모은 작은 헌금,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내 손에 꼭 쥐고만 있으면 그건 그냥 내 것에 불과하지만,
손을 펴서 나누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오병이어)이 오천 명을 먹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나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의 선물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제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부려 움켜쥐지 않고 기쁘게 손을 펴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14 충성①: 작은 일에 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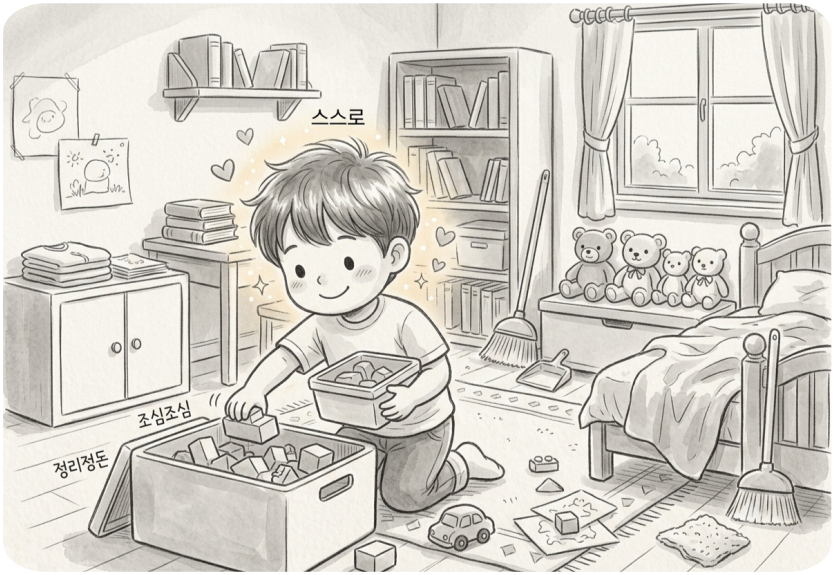
2026년 11월 7일(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눅 16:10)

'충성'이라고 하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한 약속을 꼭 지키는 것, 학교 숙제를 미루지 않고 성실히 하는 것, 내 방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바로 '충성'이에요.
작은 블록 하나하나를 튼튼하게 쌓아야 멋진 성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에이, 이런 작은 일쯤이야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성실한 친구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더 멋지고 큰 일도 맡겨 주신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해내요!
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힘과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제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해내게 해주세요.
누가 보지 않아도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성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기

15 충성②: 신실한 예배자

2026년 11월 8일(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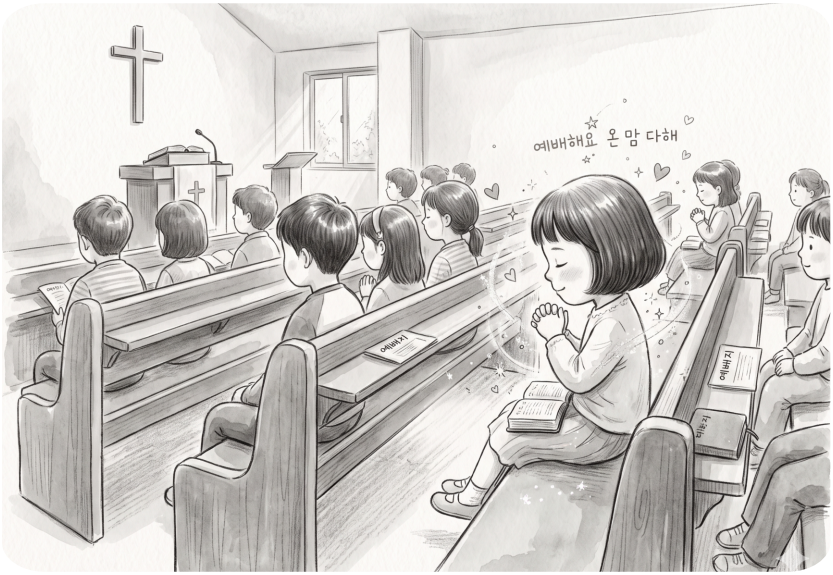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잠 28:20)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잘할 때나 실수할 때나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는 거예요.
늦잠을 자고 싶거나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요.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친구가 바로 충성스러운 예배자예요.
세상의 반짝이는 것들을 쫓아가기보다,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16 온유①: 부드러운 태도

2026년 11월 9일(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잠 15:1)**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 중에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차게 부는 거친 바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부드러운 햇살이었어요.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는 바로 이 따뜻한 햇살
같은 부드러운 힘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퉁명스럽게 말할 때, 똑같이 거친 말로
맞받아치면 싸움이 커질 뿐이에요.
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와 미소로 대답하면,
상대방의 화난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진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힘을 가지고도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부드럽게 조절할 줄 아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따뜻한 햇살처럼 주변을 포근하게
만들길 소망해요.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대답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따뜻한 햇살처럼 친구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온유한 태도를 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17 온유②: 약한 것을 돌봄

2026년 11월 10일(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마 11:29)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지요.
예수님 곁에 가면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도 나보다 작고 약한 존재들을
소중히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린 동생들을 친절하게 챙겨주고, 몸이 불편하거나
소외된 친구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는 작은 동물이나 식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보살펴 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편안한 쉼터 같은 친구가 될 때,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요.
언제나 나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시는 온유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나보다 작고 약한 친구들을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돌보게 해주세요.
언제나 제 마음에 평안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기

18 절제①: 나의 욕심 줄이기

2026년 11월 11일(수)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잠 25:28)

신나는 자동차에 액셀(달리는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
(멈추는 페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금방 큰 사고가 나고 말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원하는 대로 달리는 힘뿐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브레이크가 꼭 필요해요.
성령님의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가 바로 그 멋진
브레이크예요!

재미있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영상을 더 보고 싶을 때,
스스로 시간을 정해두고 딱 멈추는 용기!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이만큼이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성벽이 튼튼해야 성을 지킬 수 있듯, 절제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보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준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절제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제 마음에 멈출 줄 아는 멋진 브레이크를 달아주세요.
게임이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를 잘 조절하게 해주세요.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19 절제②: 지구를 위한 절제

2026년 11월 12일(목)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고전 10:31)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물건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제는 지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절제'가 꼭 필요한 때예요!
양치를 할 때 물컵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 전등 스위치를 끄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먹을 만큼만 음식을 덜어서 남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일이에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지키는 일이니까!"

나의 작은 절제가 모이면 아파하는 지구가 다시 푸르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제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합니다.
물과 전기를 아끼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착한 절제를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20 마무리①: 열매 맺은 내 마음

2026년 11월 13일(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15:5)

어느덧 감사노트를 쓴 지 스무 번째 날이 되었어요!
처음엔 작았던 마음밭의 씨앗들이 그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볼까요?
나뭇가지가 혼자 힘으로 끙끙댄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지가 튼튼한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저절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만으로는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기 어려워요.
하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로 꼭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지난 시간 동안 감사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내 모습을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사랑과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언제나 내 삶의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일 예수님 안에 머물며 감사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21 마무리②: 이웃으로 흘려보내기

2026년 11월 14일(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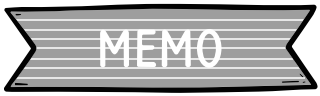
드디어 21일 감사 여정의 마지막 날이에요! 끝까지 완주한 친구들 정말 멋져요!
나무에 열린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무 혼자 먹으려고 맺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과 새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맺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맺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세상을 위해 나누어 주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교실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맺은 열매를 친구들과 이웃에게 맛있게 나누어 주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따뜻하고 착한 모습을 보며
"와, 하나님을 믿는 친구는 정말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낼 거예요.
21일 노트는 오늘로 끝나지만,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감사와 열매 나눔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오늘의 감사 기도

하나님, 21일 동안 감사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맺힌 좋은 열매들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게 해주세요.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의 감사 일기


MEMO

★ ★

감사를 배우고 기록해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해요!

하름교회 교회학교